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월 23일에 Sunday School VBS가 있습니다. (일시: 6월 23일 오전 9시—오후 2시)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 주시고 식사 및 진행 과정에 관련해서 Volunteer가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분반활동 교사 4명
- 등록 및 영상/음향 지원 각 2명
- 음식 준비 및 봉사
- 오늘 1:30pm VBS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는 VBS 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6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김종한 장로 (시 20)

이번 주 친교: 송은주 집사, 노미라 집사

다음 주 친교: 임미숙 집사, 이현주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기도(Invocation)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 ----- “종으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행 2:14-24; 33; 36-42**-----인도자  
 설교(Sermon)-----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80장 (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함께  
 대기도(Invocation) -----시편 138편----- 김동수 집사  
 찬양(Choir) ----- “성령이여 임하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행 2:14-24; 33; 36-42**-----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539장 (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난 곳 방언으로 (사도행전 2:1-13)**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은 증인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행 1:18).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또 본 것을 남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제자들의 말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말이 증거되기 위해선 1) 진실해야 하고, 즉 본 것이어야 하고; 2) 알아듣게 말해야 합니다, 즉 통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에 착 감기는 말이어도 진실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진실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증거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고, 선포를 여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의 정확한 역전입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흠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흠어지게 된 것은 거역과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말들이 저주와 단절이 아니라 알아듣는 소통의 통로, 찬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난 곳으로 돌아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흠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땅에 편만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의 완수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말은 땅끝까지 통하는 소통의 언어가 됩니다.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궁창과 하늘, 낮과 밤의 찬양 가운데,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우리의 찬양도 한 성부를 맡았습니다. 억지 외국어가 아니라, 낯설기만 한 거룩한 표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가르쳐주신 익숙한 우리 목소리,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땅끝까지 들리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크신 구원의 은총을 입고 보고 감사하게 하시도록 간구합시다. 만물이 찬양하는 우주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익숙한 우리 말, 유창한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때문에 증거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단기선교지에서 경험합니다. 서툰 외국어로 전도할 때 오히려 통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부유함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소통의 근거라면, 우리는 또한 다른 민족, 다른 세대의 언어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와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알고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섬겨야겠습니다.